

개신총회, 개혁총회 교단 통합 선언

제100회 총회 22일 중앙중앙교회에서 합동총회로 회집

개신총회(합동위원장 박용목사)와 개혁총회(합동전권위원장 임장섭목사)가 합동을 선언하였다.

2015.8.28.(화) 개신총회 사무실에서 양측은 합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9.2(수) 개신총회 사무실에서 합동을 선언하고 양교단이 통합하기로 선언하였다. 2015.9.22.(화) 오후 2시 중앙중앙교회에서 “연합과 화해를 이루는 총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집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개신총회 합동위원회와 개혁총회 합동전권위원회는 계속 물밑 접촉을 통해 합동의사를 타진하고 합동에 대한 조건을 조율하는 등 합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단 합동이라는 폐지를 이룩하게 되었다.

개신총회는 그동안 총회를 장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과 교단의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교세확장을 고민하고 있었고 개혁총회는 총회의 공식 인준신학교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장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로의 고민을 충족시켜

켜주는 접점으로서 이번 통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합동합의서에서는 △총회 공식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으로 한다. △ 2007년 중앙중앙교회, 경기1노회, 개혁총회 재단국,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면직출교된 자들은 교회법과 사회법의 관례대로 시행한다. △ 총회 인준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로만 한다.

후원이사회를 조직하여 전국교회가 후원키로 한다. △ 합동이후 학적 미비자(MDiv 과정)들은 총회가 목회자 학적복원을 절차에 따라 개신대학원대학교로 정리한다. △ 헌법과 규칙 등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교단의 헌법과 규칙을 존중하여 새롭게 개정하며 목사정년제는 폐지하고 공직(총회와 노회만 해당되며 각 지교회와 당회는 제외) 정년은 70세로 하며 여성안수는 허용한다. 개정위원회는 합동위원회에서 양측 2인씩 소위원회를 선정하여



구성하여 개정하게 한 후 합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100회 합동총회에서 결의한다.는 조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합동선언을 통해 갈수록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에 다시한번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한국교회에 늘어난 부흥과 다음세대 부흥을 이끄는 교단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을 위하여 개혁교단은

화합하며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의 분열의 상처와 아픔을 거울삼아 회개와 용서와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등단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며 개혁총회와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통합하여 이제 하나가 됨을 선언하였다.

두 교단이 하나되어 개혁교단의

증흥을 꿈꾸며 흠어져 있는 모든 개혁인들을 모으고 소망을 주는 개혁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합동위원장 박용 목사는 이번 합동을 통해 개신대학원대학교 중심으로 개혁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번 통합을 통해 개혁교단이 다시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신총회·개혁총회 합동 선언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가 7개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원 목사 96명(선교사 44명 한국인 목사 52명)과 장로 125명 도합 221명이 1912년 9월 평양에 있는 장로회신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서 회장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렸으며 초대 총회장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올해로 총회는 이제 100회기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온 주역이며 최고의 부흥을 이끈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상교단은 많은 분열과 분리를 통해 나누어졌습니다. 신학 문제로 교권 문제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개혁교단은 1979년 합동교단과의 분열이후 합동교단에 버금가는 대형교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개혁총회는 교파색과 지방색 그리고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서로 다투며 또 나누어지고 합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역사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며 국가적으로 축하하며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역사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간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대화함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남북간의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장 개혁 총회가 바로 그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고 민족 화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제1회 총회가 열렸던 평양은 동토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땅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거룩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에 다시한번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한국교회에 늘어난 부흥과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개혁교단은 화합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분열의 상처와 아픔을 거울삼아 회개와 용서와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등단결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맞이하며 개혁총회와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통합하여 이제 하나가 됨을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되어 개혁교단의 증흥을 꿈꾸며 흠어져 있는 모든 개혁인들을 모으고 소망을 주는 개혁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의적인 합동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9.22(화) 중앙중앙교회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총회에서 개혁총회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며 개혁총회가 대동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개혁인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며 노래하며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2015. 9.2.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합동전권위원장 임장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합동 위원장 박 용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30년사 편찬

손석태 명예총장, 김광재 전 총장 비롯해 교수들 중심으로 편찬위원회 구성

개신대학원대학교(이사장 조성환 목사, 총장 조성현 목사)가 30년사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조성환 목사, 조성현 총장, 손석태 명예총장, 김광재 전 총장, 배종열 교수, 노원석 교수, 구병욱 교수, 고대성 목사 등은 지난 23일 모임을 갖고 30년사 역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편찬위원장에는 조성환목사, 총무 구병욱 교수, 서기 고대성 목사를 선임했다.

집필위원으로는 손석태 명예총장, 집필위원으로는 손석태 명예총장, 김광재 전 총장, 배종열교수, 이



상남 목사, 김구원 교수, 노원석 교수, 구병욱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편찬위원장에는 김광재 전 총장을 선임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30년사는 제1부 1901.5~1978.12 까지 평양신학교에서 장로회신학교를 거쳐 총회신학교에 이르는 역사를 수록하고, 제2부는 1979.1~1986.12까지 북구 총회신학교의 역사를 수록하기로 했다.

제3부에서는 1987.1~1996.8까지 개혁신학연구원 전기, 제4부는 1996.9~2003.8까지 개혁신학연구원 후기를 제5부에서는 2003.9~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를 수록하기로 했다. 부록에는 역대교장, 원장, 총장 명단과 역대 이사장 및 이사진, 역대 교수진의 명단을 수록한다.

특히 특별기고에서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과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글을 실기로 했다.

편찬위원회는 역사 편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역사발간을 통해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며 동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성을 정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이사장은 “편찬기간 및 출간 일정에는 1년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신대 교수님들과 동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30년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신대학원대학교 30년사 편찬은 개신대학원대학교의 모태인 개혁신학연구원의 태동에서부터 발전 과정 등 모든 부분을 다루고 정리하여 역사를 편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개신의 모든 역사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신 30년사가 편찬되면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역사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총회 소집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헌법에 의거 제2회 개신총회를 회집하고 난 후 제100회 합동총회로 회집하고자 합니다. 개신총회와 개혁총회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양 교단이 합

동하기로 선언하고 아래와 같이 개혁총회라는 이름아래 합동총회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총회는 전 총회신학 회원들이 모여 축제 총회로 치르기로 하여 총회회원 전원을 소집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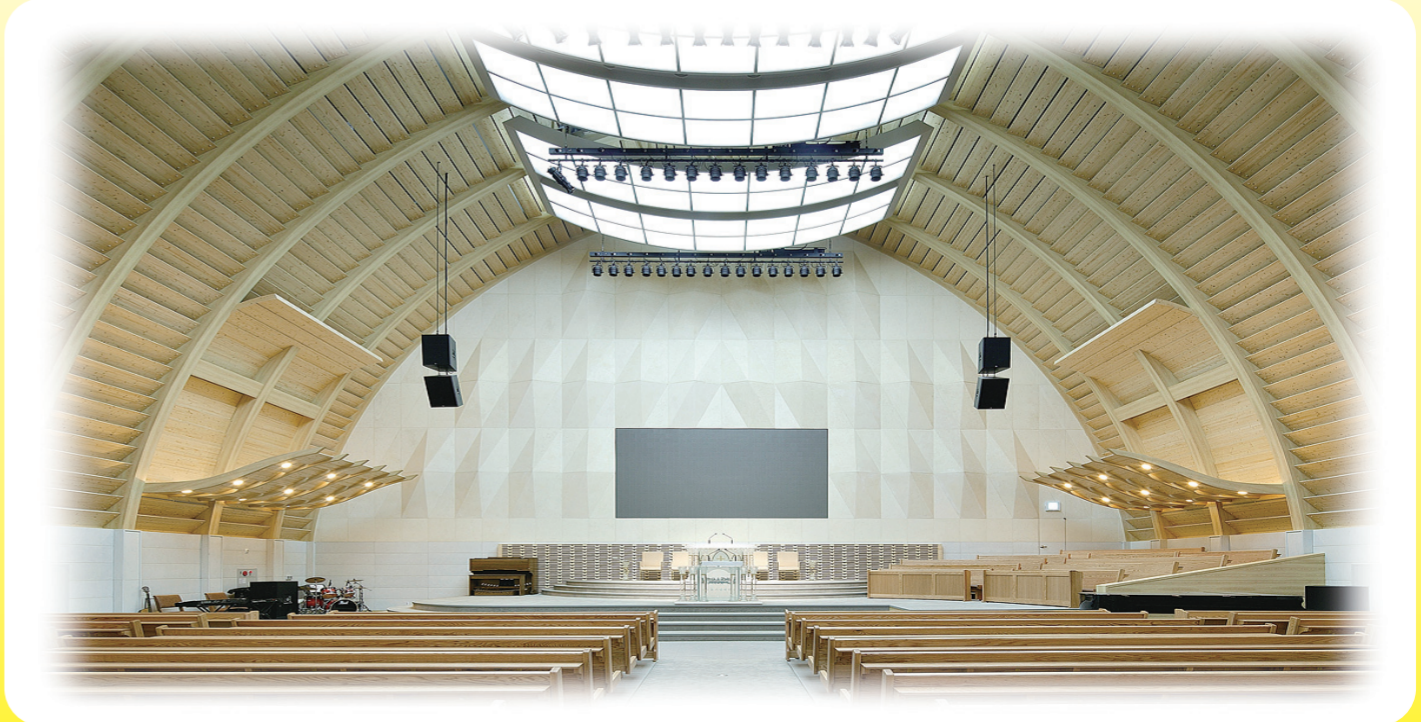
제2회 개신총회

- 일 시: 2015년 9월 21일 (월) 오후 2시
- 장 소: 중앙중앙교회당(조성환목사 시무)
서울시 성북구 중앙동 19길 18. ☎(02)928-4715

제100회 합동 총회

- 주 제: ‘연합과 화해를 이루는 총회’(시133:1~3)
- 일 시: 2015년 9월 22일 (화) 오후 2시
- 장 소: 중앙중앙교회당 (조성환목사 시무)
서울시 성북구 중앙동 19길 18. ☎(02)928-4715

2015년 9월 3 일



사진으로 보는 총회합동 이모저모



3개교단 합동합의



3개교단 임원들



양교단 합동위원회



3개교단 합동 회의



합동기사회견



3개교단 합동소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개혁총회 MOU



개신총회와 개혁총회가 합동하여 제100회기가 회집됨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종암중앙교회**
장로회 JONGAM JUNGANG PRESBYTERIAN CHURCH

섬기시는분들

- 원로목사 조경대
- 담임목사 조성환
- 부목사 안재인 고태성 나경훈
- 협동목사 조성현 조재천 노원석 김구원 배종열
- 교육목사 황금주
- 여전도사 김형자 안호숙
- 교육전도사 김아론 류태욱
- 원로장로 진병도 김정유 황호연
- 시무장로 진왕수 최삼봉 한광옥 조동일 김영수
- 하영선 김찬중 김동균 김형주 조은철
- 협동장로 김공대



조성환 담임목사

특/별/기/고 - 개신총회와 개혁총회가 하나됨을 환영하며

오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손석대 목사
철학박사, 개신대학원대 명예총장

우리 대한예수장로교회 개신총회가 개혁(송전동) 총회와 합동 선언을 했습니다. 3자 협동을 추진해오던 전복의 개혁(종로) 형제들이 이번에 함께 손을 잡고 합동 선언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팔을 벌리고 이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총회와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우리 개혁의 흠어진 형제들을 모으는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대한예수장로교회 총회 제 100회기를 맞아 이러한 놀라운 합동의 출발 선언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에게는 지난 역사에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감추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역시 교단의 분열과 분열입니다. 만일 우리 개혁 교단이 분열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컸습니다. 한번이면 족할 분열의 비극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름까지 내주고 빈손 들고 나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거룩한 그릇이기를 남겨두시고 세순이 돋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생활을 마치고 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지파분열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방족속의 괴롭힘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에게,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는 전문을 보내어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사이에 왕의 언약(The Covenant of Kingship)을 맺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왕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북으로 또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지 않고 교단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총회, 어떠한 교단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총회를 연상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기면 새롭게 총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가 된다는 것은 옛 사고방식,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인생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생철학이 확립되지 않으면 항상 옛 생활을 답습하고, 옛 사람하는 일을 모방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뇌는 우리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컴퓨터에서 뇌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구식 버전이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새로운 첨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 컴퓨터가 구식이면 툭 다 쓸 수 없습니다. 교단을 새롭게 함으로써 출발하려면 과감한 개혁적인 정신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번만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고, 실패를 우리 후배, 후손들에게 물려

하고, 가장 딱고물이 많다는 교육부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총회 기간 이틀을 소비하는 상비부 조직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총회원이 다 상비부서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비부원 수가 30-40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 부서에 전문가 5-10명이면 족합니다. 적절한 전문 상설기구를 만들어 총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총회는 말씀이 있는 축제,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 사령이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먹고 마시다가 선거만 끝나면 돌아가버리는 총회는 없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총회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역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입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을 수 없으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어머니와 같아서 모교라고 합니다. 모교는 잘 해도 모교이고, 못해도 모교입니다. 아무리 바보짓을 하고 미워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이듯이 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교의 졸업장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먹고 사는 내가 어디를 간들 모교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력을 세탁하고, 더 훌륭하고 많은 학위증을 소유한다 해도 그는 그가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모교는 영원한 모교입니다. 그의 본적과 출생지는 바꾸지도 지울 수도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머니를 잊고 고향을 등진 인생이 아무리 출세하고 잘 된다 한들 행복이 있을 수 없듯이, 모교를 등진 목회자에게 목회자를 등진 자기 성도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모교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모교가 빛납니다. 우리 개신대 동문들은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교를 떠나 있다가, 모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교를 중심으로 합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똬뚨야 합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보수 개혁신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 이사장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비전과 열정이 있는 분이고, 새 총장도 우리 개신대 출신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과 겸손과 실력을 갖춘 미남입니다. 교수들도 다 영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분들입니다. 학교 재정도 넉넉합니다. 학교가 돈이 없어서 합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교단의 신학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교육시키는 중요한 임무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계속 교육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 교육의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반드시 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목회가 성공하고 교단이 성장하려면 신학교에서 공급하는 지속적인 학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총회에서는 신학교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개신대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합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개혁과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분열하지 않고, 주님 사명, 주님 은혜, 우리 모두 손잡고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에게 목회가 성공하고 교단이 성장하려면

신학교에서 공급하는 지속적인 학문적 지원이 필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총회에서는 신학교의 중요성에 무게 두고 개신대를 사랑하길

래서 우리 개신총회는 살리는 총회(신학), 전 회원 총회(총대), 공부하는 총회(교육), 맑은 총회(재정과 선거) 등의 표제를 내걸었었습니다. 모두가 이를 기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총회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여 나아가길 목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우리 교단은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할 이상과 목표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머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참하게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머리는 옛날 그대로라면 우리는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흠어진 형제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니 우선 반갑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서 나가면 무엇인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회개란 우리의 뇌를 바꾸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깨물어 핏서를 쓰고, 피를 받아 섞어 함께 마시더라도 이번만은 절대 분열하지 말자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총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사고방식을 바꿉시다.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을 합시다.

셋째는 우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100년전, 50년전, 30년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첨단 IT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부작용과 부패가 쌓여가서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고, 교권이 난무하는 총회가 되고, 그것을 정지시킬 브레이크가 없어 결국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개혁 총회는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시대와 필요에 맞는 헌법과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의무 분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총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총회 이름도 바꾸고, 총대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문제 많은 정치부도 없애고, 가장 부패한 고시부는 폐지해야

시스템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개혁총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는 개혁의 종교입니다.

넷째는 우리 개혁총회의 목회자들은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번에 합동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신학교가 없어서 합동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총회의 신학교로 인준한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제 86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연구원의 모든 역사와 전통과 신학과 학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개혁총회 신학교, 개혁 총회의 목회자 양성기관입니다. 우리는 흠어진 형제들이 새롭게 합동에 들어가며 이 인식을 새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없으면 그 교단은 마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대를

합동결의문

우리는 제99회 총회에서 결의된 합동전권위원회가 결정한 제100회 총회에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측(합동전권위원장 임장섭 목사)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측(합동위원장 박용 목사)의 합동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그리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며 앞으로 양 교단이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며 과거에 영화를 회복하기까지 모두가 분연히 일어서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하나, 우리는 99회기에서 합동전권위원회에 인가된 신학대학원대학교를 총회의 인준신학교로 인준하는 문제의 해결과 개혁 형제교단 합동결정을 맡긴 사안과 그 결과에 대하여 끝까지 존중하며 따르기로 한다.
- 하나, 우리는 한 뿌리를 둔 개혁형제들이 모두 하나 되는 날까지 계속 합동과 영입을 진행해 갈 것이다.
- 하나, 우리는 안성삼 총회장이 99회 1차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합동전권위를 중지 시키려했던 초법적 행위에 대해 불법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합동문제를 차기 100회 총회로 넘기자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 하나, 우리는 양측 합동위원회가 결정한대로 2015. 9. 22.(화) 오후2시 본 총회가 100회 총회를 중앙중양교회에서 전 총대들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 하나, 우리는 금 번의 합동패거가 정치 논리를 배제하며 순수한 연합을 지향하여 진행되었음을 천명한다.
- 하나, 이번 합동으로 인해 개혁측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결집이 이루어지며 진리를 수호하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천명한다.
- 하나, 우리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우리의 신학과 신학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정신적 요람임을 천명한다.

2015. 9. 2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증경총회장단
류방식 목사, 임장섭 목사, 신용현 목사, 장세일 목사, 이기태 목사, 송동원 목사, 이재창 목사, 박영길 목사, 윤종식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2015년 후기 졸업식 훈사



조성현 총장

수 년 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 동산인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의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물심양면 수고하신 가족과 교회, 열의를 다해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교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개신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서 그 순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 4천 5백여 명의 개신 인들과 함께 '살리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경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수진의 가르침 아래 사랑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대표적으로 의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를 갖고 살아갈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묻는다면, 만약에 제대로 공부한 의사라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비롯된 제네바 선서를 의사의 기본윤리원칙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복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는 동료들 형제처럼 여기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류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의 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정말 이러한 초심과 다짐을 의사가 가운을 벗는 그 날까지 지키려면 모르긴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묵숨과 생명이 오늘 살아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네바 선서를 통해 영혼의 의사라고 불리는 목회자들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선서에 근거하여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을 때 선서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목양의 길을 가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양을 봉사하는 일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목회 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목회를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양의 영적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의 양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목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나의 동료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이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양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나의 목회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의 생명을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

오늘 진정한 개신인으로 거듭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선지동산인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일원으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을 그 때의 초심을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니, 하나님을 뵈는 날까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인약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진심어린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목회자, 상담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사회일원이 되어 가는 곳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 예장개혁과 MOU 체결

목회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지정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조성현 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류현목 목사)와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2015.7.23. 개신대학원대학교 402호에서 진행된 협정 체결식에서 개신대학원대학교와 총회 개혁신학원과 결연체제를 구축하여 교단 목회자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합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혁신학원은 2015년 7월 23일부터 개신대학원대학교를 목회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담당케 한다.
2. 본 교단의 목사로서 신학교는 졸업했으나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학적이 없는 이들이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규정한 소정의 교육을 통해 개신대학원대학교의 학적을 취득하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 학생추천과 기부금 및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목회(목사)의 인준신학교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 준있는 목회자 양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

개혁총회가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인준신학교로 다시 지정함으로써 교단의 목회자 양성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

련한 것이며 개신대학원대학교측으로서도 학생모집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개신대학원대학교 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8월13일 개신원 대예배실, 철학박사 등 19명 학위수여

개신대학원대학교(이사장 조성환 박사, 총장 조성현 박사)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13일(목) 오전 11시 개신대학원대학교 7층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조성환 박사의 인도로 드려진 1부 예배는 순서자들이 임정한 후 인도자의 개식사로 시작되어 신양고백과 찬송 259장을 부른 후 총회서기 하금식 박사가 기도를 하였으며, 총회장 박용목 목사가 14-21 말씀을 본문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라는 제의의 설교를 하였으며, 명예이사장 조경대 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학위수여식은 교학처장 배종열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기획처장 노원석 교수가 학사보고, 교학처장 배종열 교수가 학위수여위원을 한 후 총장 조성현 박사가 상장수여를 하였으며, 이사장 상에 김영철, 총장상에 나랑게릴 씨가 수여하였다.

계속해서 총장 조성현 박사가 훈사, 증경총회장 임종학 박사와 증경총회장 박영길 박사가 축사, 증경총회장 장세일 박사가 격려사를 하였으며, 졸업생 일동이 기념품 전달을 하였으며, 찬송 355장을 부른 후 배종열 교수의 기도로 수여식을 마쳤다.



학위수여자

- △ 철학박사(Ph.D) : 김미선
- △ 성경신학박사(ThD in BS) : 오석우, 김영고
- △ 신학석사(ThM) : 강두남
- △ 성경신학석사(ThM in BS) : 이승욱
- △ 목회학석사(MDiv) : 김영철, 김장희, 변병탁
- △ 사회복지학석사(MSW) : BOLD BAIGALI(바이갈), TUMUR BATTSETSEG(밋체체), BORTOLGOI ALTANTUYA(알탕토야), BYAMBABAATAR OYUNBILEG(어윤빌렉), JARGALSATKHAN ENKHTUYA(헝흐토야), BAYARAAK HASHBAATAR(하시바타르)
- 상담심리학석사(MCC) : BATMUNKH NARANGEREL(나랑게릴)
- 코칭학석사(MCS) : 김영숙, 윤홍실, 한성심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개신총회와 개혁총회의 합동을 축하합니다

개신총회와 개혁총회 한 형제들이 의미깊은 제100회 총회에서 합동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모든 총회원들과 동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성교회/비서 조성현 총장	신학박사 노원석	사회복지학 이정현	목회학 박경진
구약신학 손석배	상담심리학 장보현	코칭학 유승철	포도신학 송태훈
역사신학 김경재	상담심리학 안도희	코칭학 최상호	교회음악 박경민
구약신학 김주환	상담심리학 장원희	기독교교육학 이정현	교회음악 김경진
신약신학 배종열	사회복지학 김영준	기독교교육학 김재우	목회학 배종준
전도학 구병욱	사회복지학 양영준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235 Dobong-Ro, Gangbuk-ku, Seoul, 142-810, KOREA
142-8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35
Tel : 02)945-0910 / Fax : 02)945-0143
www.rts.ac.kr

총회 합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성환 목사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번 개신총회와 개혁총회가 하나되어 제 100회 총회로 모이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저희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약 4천 5백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며 보수, 개혁신학의 산실로 한국 교회사에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저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신학의 '파워플랜트'가 되도록 돕겠다고 이사장 취임연설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혁신학연구원 역사의 전통을 계승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고급 신학 사상이 만들어지고 가르쳐지는 대학원대학입니다. 비인가 시절 수백명의 신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몰려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가르친 석학 교수님들과 그분들의 신학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중앙중앙학원 이사회는 이를 위해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의 학문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좋은 교수님들을 새롭게 모시고 학교가 위대하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사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학, 공교회적 전통에 선 개혁신학, 교회현장을 살리는 개혁신학을 세우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며 좋은 면학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개혁총회를 섬기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목회학사, 신학사과정과 박사과정, 상담학과 학점은행제, 외국어 어학당 등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학교가 어렵지 않을까 잘 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만나기는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어려워 합동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만 했다면 합동에 반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는 학교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사역할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개신총회의 규모는 우리의 졸업생들이 가서 사역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단에 어울릴 수 없이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우리 개신총회가 개혁총회와 합동을 하더라도 개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개혁과 함께 그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와 개신총회 그리고 합동총회가 될 개혁총회의 미래는 무한히 밝습니다. 이제 개혁교단의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서로 하나되고 화합하여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고 한마음되어서 미래를 향해가는 우리 모든 개혁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합동에 관한 교계언론 반응

국민일보

예장개혁·예장개신 합동선언 기자회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장 안성삼 목사)과 개신(총회장 박용 목사)은 2일 서울 종로구 예장개신 총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교단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교단은 오는 22일 서울 성북구 중앙중앙교회(조성환 목사)에서 '제100회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통합 교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으로, 총회 인준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로 정했다. 헌법과 규약 등의 개정을 위해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목사의 정년을 폐지하면서 여성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합동위원장에 임성삼 목사, 서기에 하금식 목사, 합동위원에 예장개혁의 임성삼 황인찬 박영길 목사, 예장개신의 박용 조성환 하금식 목사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인터넷은 예장개혁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합동 선언문에는 "분열의 상처와 아픔을 거울삼아 회개와 용서, 관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맞아 개혁총회와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통합해 이제 하나가 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성환 목사는 "개혁총회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신대 출신 개혁인들이 합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 교단 통합은 개혁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개혁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기독인뉴스

개신총회와 송촌동측 개혁총회 교단 합동총회 선언

이번 개신총회와 송촌동측 개혁총회와의 교단 합동은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촌동측 개혁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으나, 합동에 나선 전권위원의 말에 의하면 다수인 3분의 2이상(28여개 노회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개신총회와 개혁총회(송촌동측)의 합동은 합동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22일 분명한 세력 구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개혁총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개혁교단의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로 다시금 모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첫 개혁총회 통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귀추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수기자

뉴스파워

예장 개신, 개혁 송촌동측과 합동한다.

류광수 목사를 영입한 예장개혁(총회장 서금석 목사)에서 나온 예장개신총회(총회장 박용 목사)가 예장개혁(총회장 안성삼 목사) 송촌동측과 오는 9월 22일 중앙중앙교회(담임목사 조성환 목사)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총회'라는 주제로 합동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락방 류광수 목사 영입 건으로 분열된 예장개신총회와 예장개혁총회가 합동하기로 함에 따라 예장개혁의 원주인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조성환 목사)를 중심으로 예장개혁 출신 목회자들이 다시 모여 개혁주의 신학을 모토로 한 총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총회 명칭을 예장개혁으로 하기로 한 것은 재논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총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총회 인준신학교로 하는 예장합신총회의 이미지처럼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단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총회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예장개혁이라는 이름보다는 예장개신이라는 이름이 교계 연합활동과 개신대학원대학교 출신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장개혁 총회장 안성삼 목사는 예장개신총회와 합동에 나선 인사들을 이합자로 규정하고, 합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에 따라 예장개혁총회는 합동 참여와 총회 잔류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구 개혁신학연구원에 뿌리를 둔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시 개혁 또는 개신 총회가 개혁주의에 바탕을 둔 교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에 대해 교계는 환영을 하고 있다. 김철영 기자

서울매일

예장 개혁총회와 개신총회 통합총회 개최기로

이번 '개혁총회와 개신총회'의 통합은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분열을 거듭했던 형제들의 아픈 상처를 봉합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조성환 박사)를 중심으로 개혁총회가 새 출발을 하게 돼 개혁총회가 제100회 총회를 기점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주영 기자

우리는 결의한 대로 합동을 향해 가야 한다!



신용현 목사

존경하는 총회회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명분도 없는 싸움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는 99회기 총회에서 합동전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동안 총회가 신학교의 부재로 인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행정 절차를 해소하고자 하여, 총회에서 인준된 M Div과정의 정상적인 신학교 내지는 직영체제를 갖춘 학교를 찾아서 여러 가운데 교섭하는중에서 우리들의 뿌리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다락방에서 정리하고 나오면서 개신총회를 구성하였고, 뜻을 맞추며 회기동안 개신 총회와 합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합동을 성사시키는 과정 속에 안을 놓고 교섭하는 가운데 잠입도 있었고 약간의 소요도 있었지만, 저는 합동전권위원들의 숭고한 결정과 선언을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통하여 본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후배들의 사역에 길을 열어주고 그동안 걸어 온 36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개혁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총회에 고합니다



임성섭 목사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형제들과 연합함이 주님의 부탁이며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1년간 총회에서 맡겨준 합동과제로 그동안 시간과 물질로 소모가 많았습니다. 총회의 합동 안이 변할 수 없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양 우리는 과정을 놓고 너무나 출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하는 일하기에 내용을 조율할 수 있고, 타협도 가능한데, 개 작두에 반역자의 목을 치듯 정죄를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개혁인들은 한 가족과 같은 연대의식과 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한 술 밥을 먹었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향수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고향에서 가족 전지가 만나듯이 우리는 수시로 교통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보는 혜안이 열리기를

저는 개혁총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오직 한길로 걸어왔습니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다가 96회기 총회장으로 본 총회를 섬겨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세일 목사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총회 회원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약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야 청정함을 나타내고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돋보이며, 밤하늘의 별은 어둠이 짙어야 초롱초롱 빛을 더한다고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을 둔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교단을 사랑하며 지켜온 자로서 이번 합동을 지지합니다. 사역의 길에서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의 결정사안은 법과 같습니다



송동원 목사

사랑하는 총회 총대 여러분! 저는 총회가 합동을 위하여 부여한 합동전권위원회가 절차를 따라 협의하고 결정된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함께 수용하고 전격적으로 따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혁인을 하나되게 하기위

하여 합동 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절차를 총회위원들의 총의로 받아 존중하여왔기 때문입니다. 합동전권위원회가 개신측과 합의하고 결정된 문서에 대표자들이 사인(sign)한 문서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유효문건입니다. 아무쪼록 100회기 총회는 진정 이념적이고, 은혜로운 축제의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기태 목사

서술이 시퍼렇게 유신 정권 때 함석헌 선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은 박정희 정권이 아닌, 수많은 엘리트들의 침묵이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개인의 법그릇, 영달과 이익을 위하여 합동을 추진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정신과 자제는 희생과 헌신이어야 하며 오직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때문에 출혈하며 해야 하는합동인지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 할 것 입니다. 이번 추진하는 100회기 합동총회는 훗날 역사는 반드시 정당하게 평가할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말할 것 입니다. 남은 날 동안 철저한 준비와 함께 모두가 이 축제에 참여하는 복된 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신총회와 개혁총회의 합동을 축하합니다



-2015년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신임원-



회장
김선미 권사



증경회장 김선좌 권사



증경회장 김옥련 권사



직전회장 박정순 권사



부회장 김선연 권사



부서기 김옥순 권사



통신서기 김춘자 권사



회계 권보라 권사



부회계 김혜영 권사



총무 유숙희 권사

대한예수교회 개신총회 전국여전도회



개신총회는 개혁총회와 합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총 회 장
박 용 목사
(순직한 교회)



목사부총회장
박찬권 목사
(하나교회)



장로부총회장
진왕수 장로
(중앙중앙교회)



서 기
하금식 목사
(예전교회)



부서기
김순모 목사
(동서울교회)



회록서기
백영강 목사
(덕암교회)



부회록서기
나건용 목사
(희망의 교회)



회 계
김영수 장로
(중앙중앙교회)



부 회 계
조계연 장로
(새인양교회)



총 무
조영식 목사
(반석교회)



사무국장
최승범 목사
(새인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 노회



노회장 최종태 목사

- 부노회장 곽효상 목사
- 부노회장 한영복 장로
- 서 기 정현욱 목사
- 부서기 조성환 목사
- 회록서기 최승범 목사
- 부회록서기 박재경 목사
- 회 계 한광옥 장로
- 부 회 계 하영선 장로

노회장 010-2536-8634
서 기 010-6616-7197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북동노회



노회장 하금식 목사

- 부노회장 조찬욱 목사
- 서 기 양민환 목사
- 부서기 김동열 목사
- 회록서기 김인석 목사
- 부회록서기 정덕순 목사
- 회 계 조성준 장로

노회장 010-6651-7732
서 기 010-3035-3065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 노회



노회장 정대성 목사

- 부노회장 류영근 목사
- 서 기 류경숙 목사
- 부서기 김남부 목사
- 회록서기 백은화 목사
- 회 계 임찬미 목사
- 부 회 계 양태술 목사

노회장 010-6418-3468
서 기 010-5225-2524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 노회



노회장 장효근 목사

- 부노회장 이경호 목사
- 서 기 이경호 목사
- 부서기 백연홍 목사
- 회록서기 박영애 목사
- 부회록서기 홍성표 목사
- 회 계 최승국 목사
- 부 회 계 김에수 장로

노회장 010-5369-1467
서 기 010-3343-5834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 노회



노회장 나건용 목사

- 부노회장 류근순 목사
- 부노회장 최만수 장로
- 서 기 정두식 목사
- 부서기 서삼상 목사
- 회록서기 하성종 목사
- 부회록서기 김수일 목사
- 회 계 김용구 장로
- 부 회 계 방두언 장로

노회장 010-7686-7004
서 기 010-7749-8549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 노회



노회장 서만성 목사

- 부노회장 강명숙 목사
- 부노회장 배윤규 장로
- 서 기 정성화 목사
- 회록서기 김기무 목사
- 회 계 황길중 목사

노회장 010-5720-1829
서 기 010-9411-9564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광역시 노회



노회장 장대수 목사

- 부노회장 박경필 목사
- 서 기 오광근 목사
- 부서기 전영성 목사
- 회록서기 이웅배 목사
- 부회록서기 경기만 목사
- 회 계 김반석 목사

노회장 010-6325-3916
서 기 011-221-58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 노회



노회장 이종선 목사

- 부노회장 권혁진 목사
- 서 기 권혁진 목사
- 회록서기 오재근 목사
- 부회록서기 김수일 목사
- 회 계 장영선 목사

노회장 010-5880-6231
서 기 010-9229-0675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남 노회



노회장 배상태 목사

- 서 기 이근주 목사
- 회 계 김석조 목사

노회장 010-4110-3604
서 기 010-9267-4773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노회



노회장 백영강 목사

노회장 010-8810-9182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북 노회



노회장 조광환 목사

- 서 기 이경훈 목사
- 회 계 이정덕 장로

노회장 010-3598-3248
서 기 010-2044-3927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 1 노회



노회장 김남식 목사

- 부노회장 노베드로 목사
- 서 기 김대현 목사
- 회록서기 김정수 목사
- 회 계 김광식 장로

노회장 010-3350-0091
서 기 010-2224-7530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 노회



노회장 이천섭 목사

- 부노회장 이동발 목사
- 서 기 이용은 목사
- 부서기 이영재 목사
- 회록서기 안상수 목사
- 부회록서기 장요엘 목사
- 회 계 유인욱 목사
- 부 회 계 공순일 목사

노회장 010-5736-9191
서 기 010-9367-7950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노회



노회장 이영오 목사

- 부노회장 박장권 목사
- 부노회장 모근창 목사
- 서 기 성재운 목사
- 부서기 박진 목사
- 회록서기 오원욱 목사
- 부회록서기 이화성 목사
- 회 계 김용안 목사
- 부 회 계 신현식 장로

노회장 010-3632-3749
서 기 010-6790-8500